

# 평등사회 대안 &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:

## Why not Sweden?

2024.11

조돈문(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, [전]노회찬재단 이사장)

“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”



## <목차>

제1부. 불평등 대한민국의 미국 사랑

제2부. 평등사회 대안과 스웨덴 모델

제3부.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

제4부. 맥락적 벤치마킹; why not Sweden?

\* 참조:

- 『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: 노동과 자본, 상생의 길을 찾다』 (2019)
- 『불평등 이데올로기 : 수저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』 (2024)
- 『평등사회 대안과 이행의 정치』 (가제, 2025?)

# 제1부. 불평등 대한민국의 미국 사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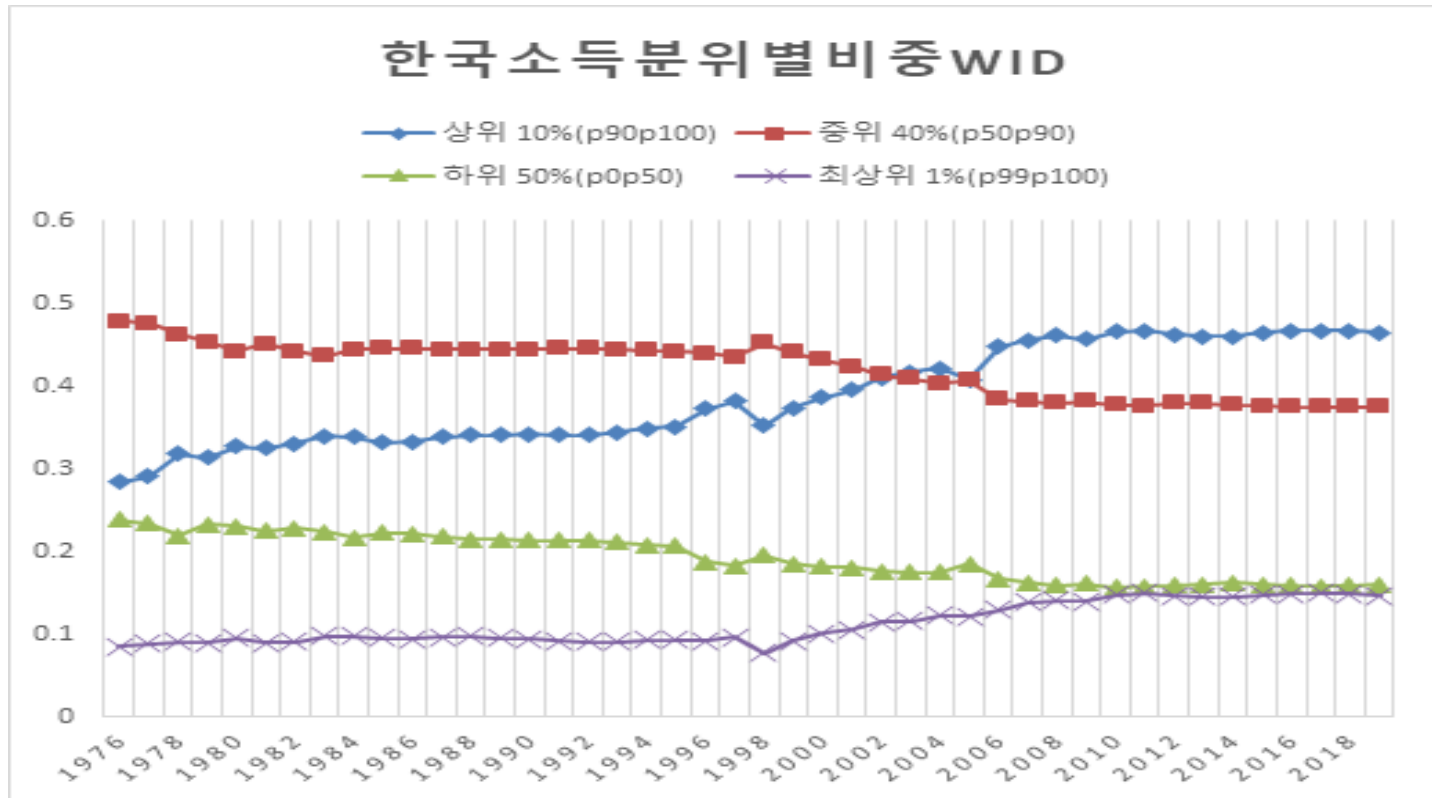
# 한국사회 불평등 실태

○ 한국사회 불평등: OECD 최고수준이며, 악화되고 있음;

\* 2010년대: 소득 상위 10% 집단의 점유율 46% ⇔ 소득 하위 50% 집단의 점유율 16%;

\* 소득배율(상위 10% / 하위 50%): 1.31배(1970년대) ⇒ 2.92배(2010년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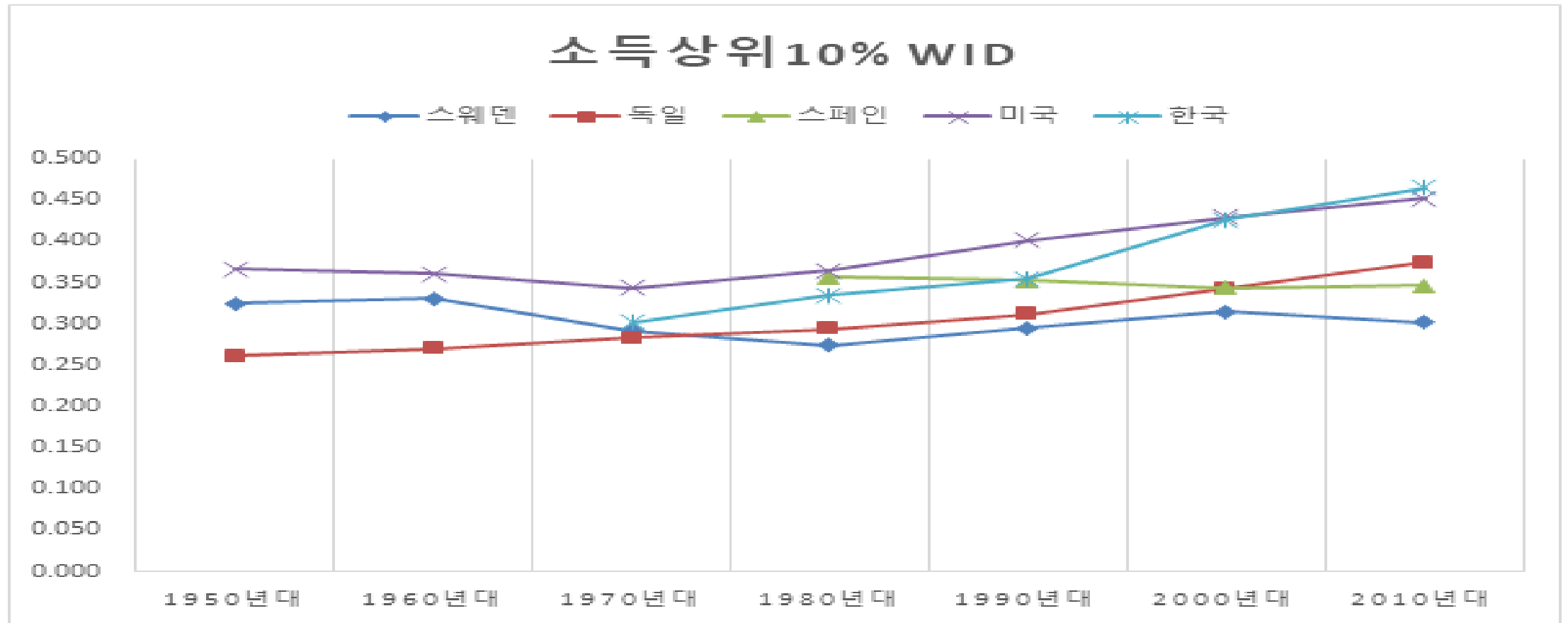
<표 1.2> 한국 소득 집단별 국민소득 점유율 변화 (WID, 세전 소득 기준)



# 불평등 심화 추세: 한국사회 & 국제 비교

- 소득상위 10% 국민소득 점유율: 1970년대부터 모든 국가들에서 꾸준한 증가세;
- 한국 상위 10%: 소득 점유율 가파른 증가세 ⇒ 유럽 수준에서 출발, 현재 미국 따라잡음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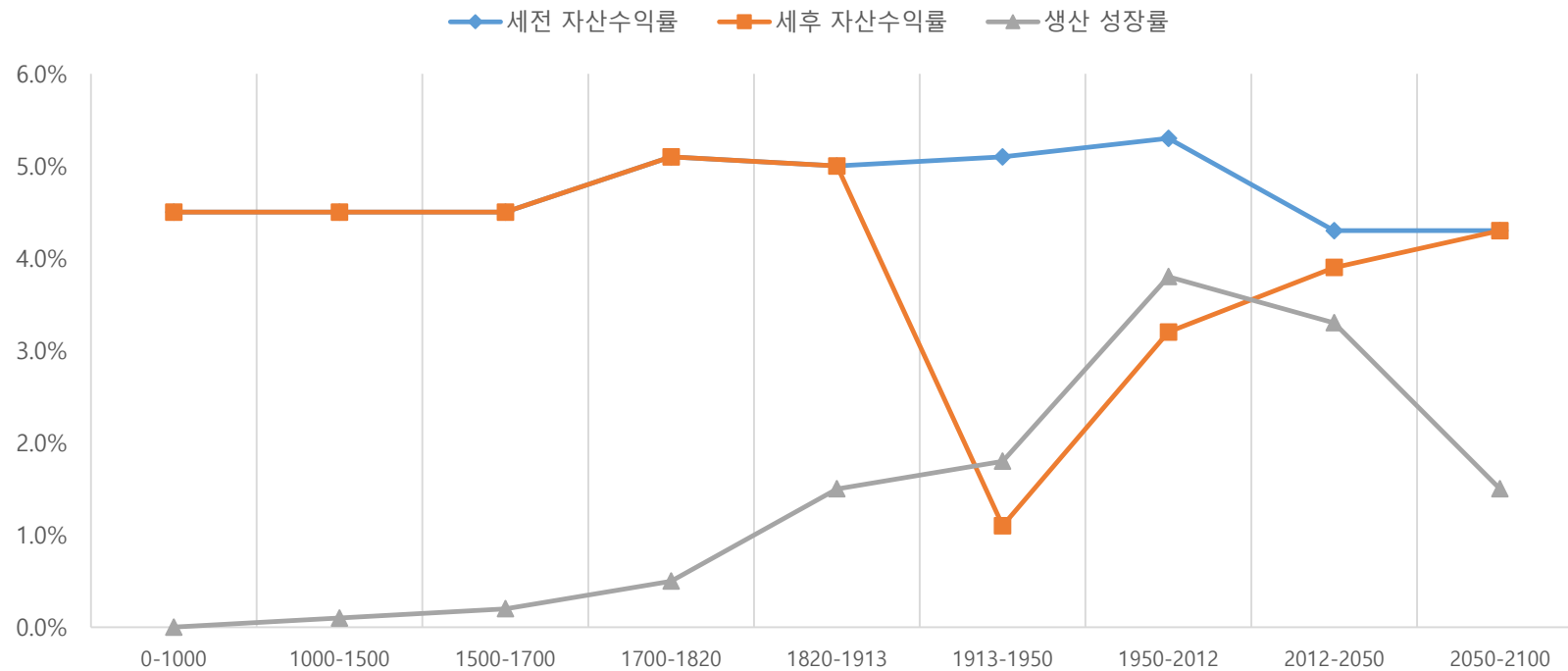
<그림 1.2> 소득 상위 10% 집단의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(WID, 세전 소득 기준)



## [피케티 발견] 자본주의: “ $r$ (자산수익률) $>$ $g$ (경제성장률)” 부등식

- “ $r > g$ ” 세전 기준(pre-tax):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성립했음; 0-1913 세전 & 세후 자산수익률 동일;
- “ $r > g$ ”(세후 기준): [유일한 예외] 1차대전 발발 시기부터 1970년대 말까지;
  - 1913-45: 전쟁·대공황으로 인한 자산 파괴, 전쟁 과세;
  - 1945-70년대(포드주의 계급타협 시기): 복지국가 수립 과세 & 고성장을  $\Leftrightarrow$  신자본주의 시기;

<그림 2.1> 글로벌 세전·세후 자산수익률( $r$ ) & 생산성장률( $g$ ) [자료: PKT 2014]



# [피케티]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심화: 3 시장 메커니즘

1> 자본주의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 : " $r > g$ " 경향성 [평균 자산수익률 > 국민소득증가율(경제성장률)];

•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확인했음[귀납적 분석]:

2> 자본주의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:

• " $r > g$ " 현상  $\Rightarrow \beta$ (자산/소득 배율)  $\uparrow \Rightarrow \alpha$ (자산소득분배율)  $\uparrow \Rightarrow$  소득불평등  $\uparrow$ ;

•  $\beta$ (자산/소득 배율)  $\uparrow$ : 서구 4-6배, 한국 8배, 상승추세  $\Rightarrow$  근로소득으로 자산불평등 극복 어려움: 세습자본주의;

- [자본주의 사회의 현재]  $\beta$ (자산/소득 배율)  $\uparrow \Rightarrow$  세습자본주의 진입;

- 한국: 수저계급사회 = 세습자본주의 + @

• 자산불평등  $\Rightarrow$  소득불평등  $\uparrow \Rightarrow$  자산불평등  $\uparrow \Rightarrow$  소득불평등  $\uparrow \uparrow$ : 불평등 대물림;

3> 선진 자본주의의 현단계: 저성장시대(저성장율 고착)  $\Rightarrow$  " $r > g$ " 부등식 격차 확대  $\Rightarrow \alpha$ (자산소득분배율)  $\uparrow \Rightarrow$  소득불평등  $\uparrow$ ;



#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& 이데올로기

-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: [소득분배 구조] 피라미드형 ⇔ 다이아몬드형; 현실-이상의 괴리;
- [소득점유율] 최상위 10%가 수혜자 ⇔ 중하위 70%가 피해자; 8-9분위 집단(20%)은 1/N 소득; <표11.1>
- 피케티 《21세기 자본》(2014): 불평등은 자본주의 구조적 특성;
- “왜, 어떻게 소수만 혜택을 누리고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불평등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?” 《불평등 이데올로기》(2024);
- 마르크스 《공산당 선언》(1848): “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”
- 피케티 《자본과 이데올로기》(2020)는 이를 “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투쟁과 정의 추구의 역사(history as a struggle of ideologies and quest for justice)”

# 지배계급 이데올로기 & 지배 이데올로기

○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지배하는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드는데 성공하기 때문임: (Althusser 1971; AHT 1980; Therborn 1980)

○ **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3 양식**(Therborn):

\* 기득권 사회질서 유지와 불평등 구조 재생산을 위한 과제: 3 기본 명제;

-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는 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하위 명제들을 이데올로기적 호명 방식으로 확산시킴; [6-8장 검증];

(1) **불평등은 없다**: 불평등 현상 은폐 과제 [6장]

(2)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, **불평등은 정당하다**: 불평등 체제 정당화 과제 [7장]

(3)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, **대안적 평등사회는 실현 불가능하다**: 평등사회 대안 부정 과제 [8장]

# 한국사회 불평등 이데올로기 검증: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인가?

## ○ 불평등 이데올로기 검증 결과: <표 9.1>

- 불평등 실태: 하위명제 3개 모두 거부됨;
- 불평등 결과: 낙수효과 & 순기능 명제 거부됨; 상승이동 기회 보장 명제 각축 중;
- 평등사회 대안: 평등사회 대안 부재 명제 각축 중; 평등사회 이행 불가 명제 수용됨;

		지배계급 이데올로기	검증 결과 [불평등 이데올로기: 수용 O, 거부 X, 각축 △]
	과제	하위 명제	
불 평 등 실태	불 평 등 존 재 은폐	① 불평등 부재	[X] 불평등 존재 ⇒ 인식
		② 불평등 수준 경미	[X] 불평등 심각 ⇒ 인식
		③ 불평등 완화 추세	[X] 불평등 심화 추세 ⇒ 심화 인식
불 평 등 결과	불 평 등 체 제 정당화	④ 불평등 낙수효과	[X] 낙수효과 부재 ⇒ 불공정성 인식
		⑤ 불평등 순기능	[X] 불평등 폐해 ⇒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
		⑥ <b>상승이동 기회 보장</b>	[△] 상승이동 가능성 낮음 ⇒ <b>실력주의 &amp; 불평등 대물림 각축</b>
평 등 사 회 대안	평 등 사 회	⑦ <b>평등사회 대안 부재</b>	[△] 이상-현실 괴리 ⇒ <b>미국식-북유럽식 각축</b>
	대안 부정	⑧ <b>평등사회 이행 불가</b>	[O] 불평등 완화 정부 개입 찬성 ⇒ <b>복지증세 부담 의향 박약</b>

# [제2명제] 불평등 있어도, 정당하다?

## 1> 불평등 사회의 피해자 ⇔ 낙수효과;

- 노동자,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낙수효과를 받지 못함;
- 세계노동인권지수(ITUC Global Rights Index): 스웨덴, 독일 >스페인 >> 미국 > 한국;
- 중대재해 사망률, 연간 실노동시간: 독일, 스웨덴 < 스페인 << 미국, 한국;

## 2>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: 사회적 갈등 ⇔ 불평등의 순기능;

- 집단간 사회갈등은 자원배분을 둘러싼 각축을 의미함:
  - 경영자-노동자 사회갈등(자본-노동 소득분배) 심각하다고 보는 정도: 한국 >> 미국, 스페인, 독일 > 스웨덴; [ISSP불평등09]

## 3> 세대간 계급위치 이동: 계급 경계 경직성(불평등의 대물림) ⇔ 상승이동 기회 보장;

- 직업지위 상향 이동 정도: 스페인, 스웨덴 > 미국, 독일 >> 한국; <표 7.7> [ISSP불평등09]

## [하위명제 ⑥] 불평등의 대물림 ⇔ 상승이동 기회 보장

- 모든 국가들: 인생 성공에 **본인 노력이 출신 배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**;
- 1) 본인 노력이 중요한 정도: 미국 > 한국 >> 스웨덴 ≥ 스페인, 독일;
  - 본인 노력 중시 정도와 불평등 수준이 모두 높은 국가들 = 상대적으로 강한 실력주의가 수립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음: 미국, 한국 등;
- 2) **출신 배경이 중요한 정도: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남**;
  - **한국 >> 독일, 스페인, 미국 > 스웨덴**;
  - 이는 불평등의 대물림으로 상승 이동 기회 보장 원칙이 훼손되는 정도임;
- 3) **한국: 본인 노력도 중요하고, 출신 배경도 중요함**;
- \* 출신 배경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더 중요하게 평가됨;

## [기회균등 원칙]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가?

○ 인생 성공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(2009년): 본인 노력 vs 출신 배경;

- 모든 국가: 본인 노력이 출신 배경보다 더 중요함;
- 한국: 출신 배경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더 중시됨;

○ 2009-2019/23년 시민 인식 변화: <표 12.3>

\* 서구 자본주의: 본인 노력의 중요성은 소폭 하락, 출신배경의 중요성은 정체(혹은 경미한 상승); 세습자본주의 진입 반영함;

\* 한국: 본인 노력의 중요성은 대폭 하락, 출신 배경의 중요성은 대폭 상승  
⇒ [2023년] 출신 배경이 본인 노력을 추월함: 수저계급사회의 특성 강화 추세;

<표 12.3> 인생 성공 요인의 중요성 평가 변화

	출신 배경①	본인 노력②	‘출신배경’ - ‘본인노력’
<2009년>			① - ②*
스웨덴	3.52	2.08	1.44
독일	3.07	2.18	0.89
스페인	3.12	2.14	0.98
미국	3.17	1.60	1.57
한국	2.64	1.71	0.93
<2019년>			① - ②*
스웨덴	3.51	2.15	1.36
독일	3.02	2.37	0.65
미국	3.11	1.67	1.44
한국(2023)	2.25	2.30	-0.05

\* 정(+)의 값은 '본인 노력'이 더 중요하고, 부(-)의 값은 '출신 배경'이 더 중요함을 의미함 (1 절대적으로 중요하다, 5 전혀 중요하지 않다)

# 평등사회 대안 부정 과제: 취약한 평등사회 이행 의지

○ 평등사회 대안 부정 과제:

\* 평등사회 대안 부재 명제는 거부도 수용도 되지 않았음;

\* **평등사회 이행 불가 명제는 실질적으로 수용되었음;**

<표 8.7> 지배계급 이데올로기 하위 명제 검증: 평등사회 대안 부정 과제

하위 명제	검증 결과		[참조] 미국 사회
	불평등 현상	사회적 인식	
⑦ 평등사회 대안 부재	다이아몬드형 대안/ 위계구조 이상-현실 괴리	<b>스칸모델-영미형(우 위) 각축</b>	이상-현실 괴리 작음
⑧ 평등사회 이행 불가	불평등 완화 정부 개입 필 요성	<b>복지증세 부담 거부: 이행 의지 박약</b>	정부 개입 반대



# [제3명제] 불평등 부당해도, 평등사회는 불가능하다?

○ 평등사회 대안: [다이아몬드형] 이상-현실의 괴리

\* 모든 국가: 바람직한 사회 위계구조 유형은 다이아몬드형;

\* 이상-현실의 괴리 크기(불만,동력): 한국 64.4% > 스페인 > 독일, 미국 ≥ 스웨덴 44.3%;

• 스웨덴은 이상-현실의 괴리가 작음: 위계구조의 객관적 조건(상대적 평등)을 반영;

• 미국은 불평등하지만 이상-현실의 괴리 작은 편: 미국 사회를 평등 사회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;

<표 8.2> 다이아몬드형: 바람직한 사회 유형 vs 현재의 사회 유형

다이아몬드형	스웨덴	독일	스페인	미국	한국
바람직한 사회유형	84.1%	70.5%	77.6%	76.0%	84.7%
현재 사회유형	39.8%	23.4%	20.6%	29.3%	20.3%
이상-현실의 괴리	44.3%	47.1%	57.0%	46.7%	64.4%

# 평등사회 이행 비용과 시민의 선택

○ 불평등 해소 위한 정부의 역할 기대:

- 소득격차 축소는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(1찬성, 5반대): 스페인(2.04), 한국(2.07) > 독일(2.39), 스웨덴(2.46) >> 미국(3.35); [ISSP불평등09]

○ 불평등 해소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정부 자원 : 사회복지 확대 위한 세금 부담은 반대함;

\* 복지증세 부담 의향(2023.2): 납부 찬성 36.3% << 납부 반대 63.7%;

- 한국인: 소득 격차 축소는 정부 책임 ⇔ 소득재분배 위한 복지증세 부담은 반대함;

# 바람직한 대안사회 모델: 한국인의 끄찍한 미국 사랑

<표 8.3> 한국사회 바람직한 발전 방향: 미국식 vs 북유럽식

바람직한 방향	2004년 5월	2023년 2월	2004-23 증감
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	45.2%	53.5%	8.3%
②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	51.6%	43.3%	-8.3%
③ 기타	3.2%	3.2%	0.0%
합계	100.0%	100.0%	

○ 미국 모델 선택은 한국인의 모순적 의식: 지배계급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의미함(불평등 체제의 정당화 & 미국 모델의 적극 실행·홍보);

\* [사회 위계구조] 다이아몬드형 위계구조를 선호함 ⇔ 미국은 피라미드형, 북유럽은 다이아몬드형;

\* [불평등 체제] 불평등 & 불공정 불만 많음 ⇔ 미국은 북유럽보다 불평등 & 불공정;

\* [바람직한 국가 성격] 평등한 복지국가 ⇔ 미국은 북유럽보다 불평등하고 복지제도 미비함;

## <표 19.1>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:

“귀하께서/당신이 바라는 국가는 다음 중 어떤 나라인가요?”

바라는 국가	2010년	2023년	2010-23 증감(%)
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	13.5	13.8	0.3
② 안보와 치안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	15.8	16.2	0.4
③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	56.0	49.9	-6.1
④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	5.5	4.8	-0.7
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나라	8.8	14.9	6.1
⑥ 기타	0.5	0.5	0
합계	100.0	100.0	

## <표 19.2> 바람직한 국가 기준 별 희망하는 국가 모델 (2023년)

		희망하는 국가 방향				①/② 배율
		①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	② 북유럽식 사 회민주주의	3) 기타	전체	
바람직한 국가성격	1)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	77.5%	21.0%	1.4%	100.0%	3.7
	2) 안보와 치안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	63.8%	34.1%	2.2%	100.0%	1.9
	3)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	42.2%	55.2%	2.6%	100.0%	0.8
	4)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	56.3%	42.7%	1.0%	100.0%	1.3
	5)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나라	57.4%	35.6%	7.0%	100.0%	1.6
	6) 기타	54.5%	9.1%	36.4%	100.0%	6.0
	전체	53.6%	43.3%	3.2%	100.0%	1.2

## 제2부. 평등사회 대안과 스웨덴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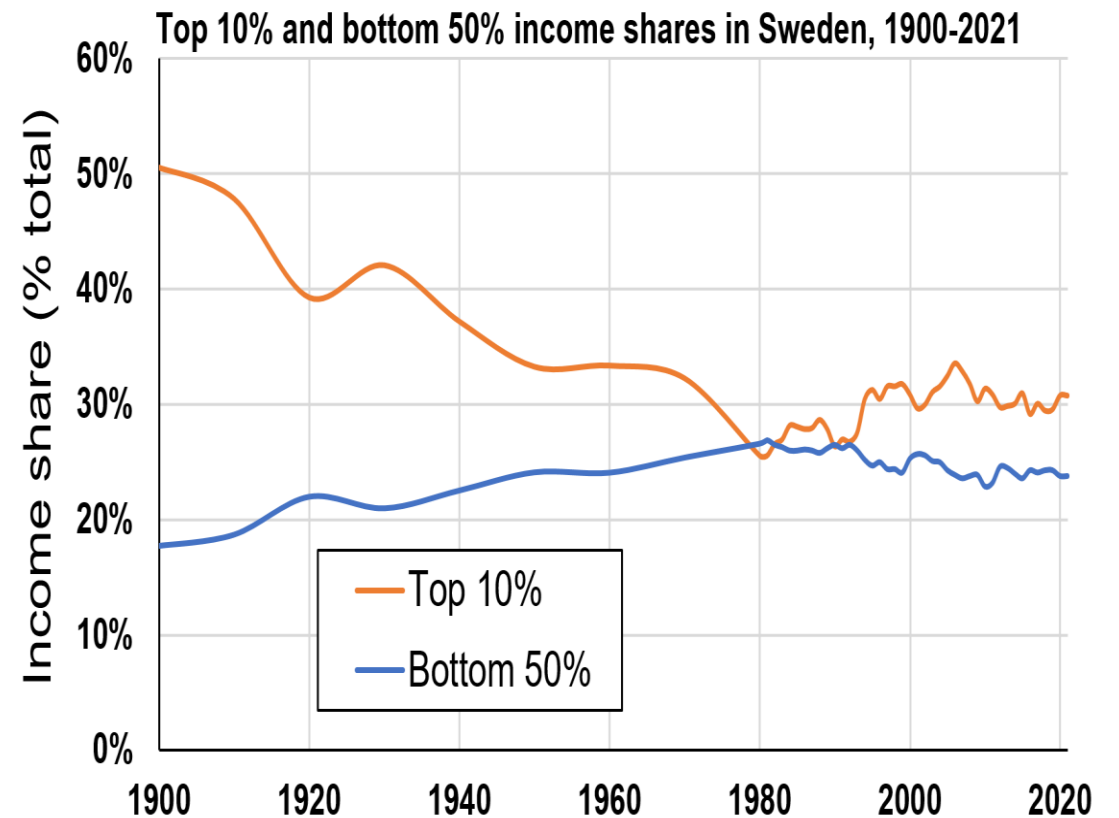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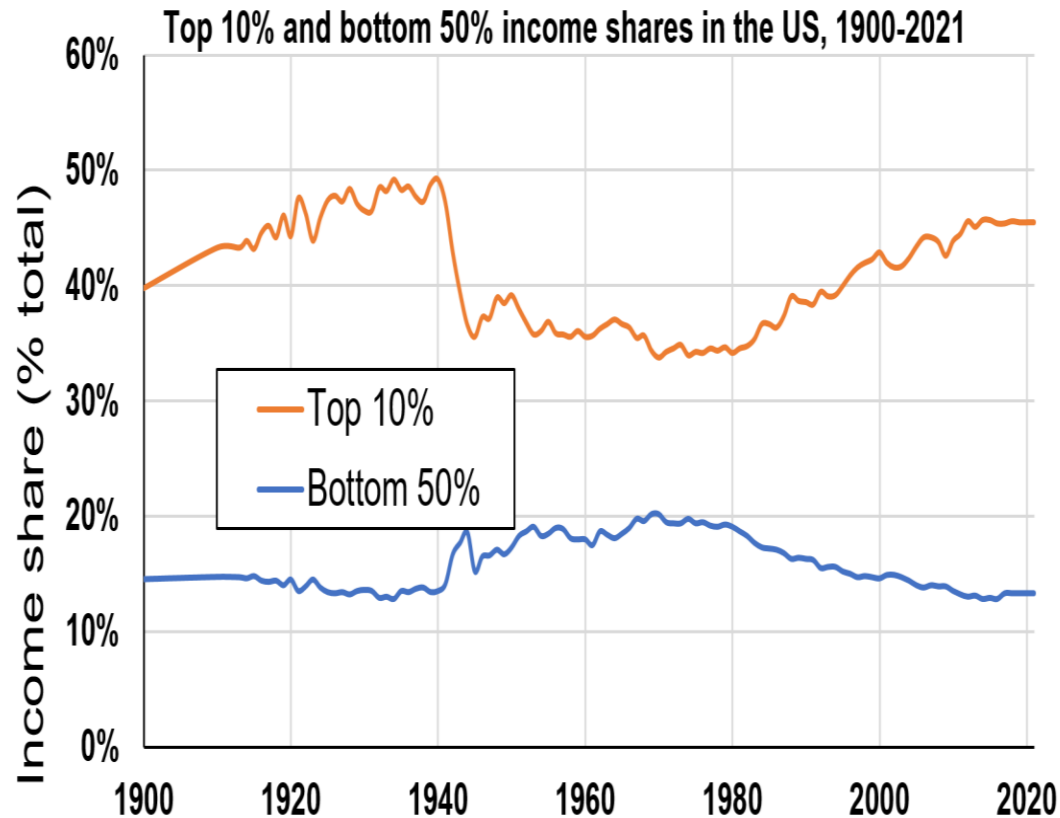
# 왜 어떤 자본주의는 덜 불평등한가?

<그림 4.1> 소득 상위 10% 집단과 하위 50% 집단의 소득점유율: 미국 vs 스웨덴

\* 상위10% & 하위50% 격차: [1900년 ⇒ 2021년]

미국 25.3%⇒32.2%;

스웨덴 31.9%⇒7.0%;



# <표 3.2> 자본주의 다양성: 시장경제모델 범주화

시장경제 모델	<u>스칸디나비아형</u> 사민주의	대륙형 조정시장경제	지중해형 조정시장경제	영미형 자유시장경제
전형 국가	스웨덴	독일	스페인	미국
<시장경제모델 범주>				
자본주의 유형	조정시장경제모델(이해당사자 자본주의)			자유시장경제모델 (주주 자본주의)
복지국가 3범주	보편주의 사민주의	보수주의·코포라티즘 대륙형		자유주의 시장경제모델
복지서비스 책임	국가 책임	코포라티즘	가족 활용	시장 매입
<생산현장의 노동과 자본>				
노동조합 조직형태	강력한 산별노조(계급조직)	강력한 산별노조	산별노조	기업별노조 (순수 이익집단)
단체교섭 방식	중앙 조정 산별교섭	산별교섭	산별교섭	기업별교섭
노동조합 조직률	높음	중간/하락	중간/하락	낮음
단체협약 적용률	높음	중간	높음	낮음



<표 4.1> 자본주의 다양성: 시장경제모델과 계급역학관계

시장경제 모델	스칸디나비아형 사민주의모델	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	지중해형 조정시장경제모델	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
<계급 관계>				
노동계급 형성	성공	진전	부진	실패
자본계급 지배양식	공존상생	포용 & 지배	비제도화	억압 & 지배
시장경제모델 형성 주체	노동계급	국가권력	국가, 시장, 노동	시장 & 자본
<노동계급 정치>				
노동계급 정치세력화	노동계급 정당 장기집권	노동계급 정당 간헐집권	노동계급 정당 간헐집권	노동계급 정당 부재
노동계급정당 영향력	사회민주노동당 장기 집권	사회민주당 간헐 집권	사회당 간헐 집권	없음
<계급정치의 결과>				
경제적 효율성	효율성	중간	비효율성	효율성
사회 통합(평등)	평등	평등한 편	불평등한 편	불평등

<표>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, 스웨덴: 계급연대 & 스웨덴 모델의 형성·변화

	1930-1950년대 중반	1950년대 말 - 1970년대	1990년대 후반-현재
계급연대 구성	노동-농민 계급동맹*	노동-중간 계급연합*	노동 & 여성
계급연대 성격	공세적 계급동맹	공세적 계급연합	방어동맹(사회적 약자 복지 동맹)
핵심 정책	보편주의 복지국가: 기초연금제(AP), 보편적 의료보험	추가연금제(ATP)/ 경제·산업민주주의: 공동결정제, 노동조합대표 이사제	복지국가 방어·유지
거시경제재정정책	렌-마이드너모델 도입	렌-마이드너모델 집행	렌-마이드너모델 방어·조정
노동-자본 공생	황금삼각형 수립	황금삼각형 발전	황금삼각형 방어·유지

\* 계급동맹: 계급연합(계급이익에 기초한 조직적 연대) + 정당간 연대 & 공동행동.

## 렌-마이드너 모델: 거시경제·재정정책의 패러다임

○ 렌-마이드너 모델: 사민당 & LO의 정책 목표는 완전고용과 평등분배;

\* 1920년대 말 스웨덴 경제위기 & 고용위기: 사민당은 과소수요론의 시각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제안함 ⇒ 1932년 집권하며 집행됨;

\* 사민당의 경제-사회정책 기조는 이후 렌-마이드너모델로 체계화됨;

- 1951년 LO 정책연구국의 Gösta Rehn & Rudolf Meidner가 개발함;

① [재정경제 부문] **긴축적 균형재정의 총수요정책**: 물가·통화 안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함;

② [노사관계 부문] **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 체계와 연대임금정책**: 동일가치 동일노동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 평등을 담보하는 한편 임금인상을 절제함;

③ [노동시장 부문] **적극적 노동시장정책**: 일자리와 노동력의 효율적 매칭 ⇒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룸;

## 황금삼각형: 노동시장의 유연성-안정성 균형

○ **황금삼각형**: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철저하게 규제함 + 고용·소득안정성을 보장함 ⇒ 관리된 유연성과 높은 고용·소득안정성을 결합함 ⇒ 유연성-안정성 균형;

\* 황금삼각형의 각 구성요소의 **이중적 보호체계**: 전국 수준의 법·제도에 의한 보호 층위 + 산업·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·단체협약에 의한 보호 층위;

① **유연한 고용계약제도**: 법규정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타당한 사유로 규제함 +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의 오·남용을 제어함;

② **적극적 노동시장정책**: 정부 **일자리중개청**이 일자리 중개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+ 노사자율 **고용안정기금**들로 해고 통보 시점부터 개입하여 해고(예정)자와 상담하며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;

③ **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체계**: 자율적 실업보험제도와 보편적 기초실업부조제로 구성된 공적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+ 단체협약을 통한 실업자 추가적 보상제도 ⇒ 해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수급기간 동안 70% 수준의 높은 소득보전률을 보장함;

# 경제민주주의: 공동결정제 &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

<표> 경영진의 평가: 피고용자 이사회 참여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(%)

	1999	2009
① 이익	61	60
② 중립	30	33
③ 불이익	9	7
합계	100%	100%
①-③	52%	53%

<표> 경영진의 평가: 피고용자 이사회참여의 구체적 항목별 평가(%)

	1999	2009	증감
<긍정적 평가>			
긍정적 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	64	57	-7
이사회결정은 피고용자들에게 깊이 뿌리내림	59	53	-6
어려운 결정들을 집행하기 수월해짐	47	48	1
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심층지식 활용 가능해짐	42	46	4
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짐	24	30	6
평균	47.2%	46.8%	-0.4
<부정적 평가>			
정보유출 증대의 위험	41	39	-2
너무 많은 무관한 의제들이 제기됨	18	14	-4
의사결정 과정이 힘들어진다	12	9	-3
이사진들 간 갈등의 위험	7	-	-
평균	23.7%(19.5%)*	20.7%	-3.0%(1.2%)*

\* 괄호밖 숫자는 1999년과 2009년 조사에 공통된 항목들의 평균값, 괄호안 숫자는 비공통 항목들도 포함한 평균값.

# 제3부.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

##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: 스웨덴의 맥락적 벤치마킹

○ 비개혁주의적 개혁(non-reformist reform) 전략: 불평등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되, 개혁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변혁을 지향함 (스웨덴의 경험);

\*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모델의 맥락적 벤치마킹: 한국 사회의 객관적 조건 고려함, 장기적 전망에서, 점진적 변화를 추진함;

○ 두가지 하위 전략으로 구성됨:

1) 노동계급 중심 주체 형성 전략:

2) 평등사회 위한 제도개혁 전략:

① 노동계급 계급형성 조건 조성 과제:

② 소득 재분배 통한 불평등 완화 과제:

③ 시장경제 모델 이행 과제:

○ 이행주체: 노동계급, 여성, 청년은 이행주체가 될 수 있을까?

○ 평등사회 대안은 구체적이고, 이행 전략은 과학이다!!



노회찬이 꿈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:

경험적 준거는 스웨덴 =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

○ “진보정당이 꿈꾸는 건 희한한 세상이 아니에요. 꿈과 현실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어차피 현실은 현실입니다. 진보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현실은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 같은 나라입니다.” (2015.1)

○ “지금 선진복지국가로 일컫는 나라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소 30%대이다, 스웨덴은 90% 육박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다... 노동이 강해지고 노동이 당당해져야 그 나라도 더 발전하고 삶의 질도 더 높아져 간다” (2018.2)

### ○ 민주노동당 강령(2000):

- \* 사적 소유를 허용하되 소유권을 규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;
- \* 시장 중심으로 자원배분하되 사회적으로 규제함;
- \* 생산주체들이 계획, 생산, 분배, 유통에 참여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기함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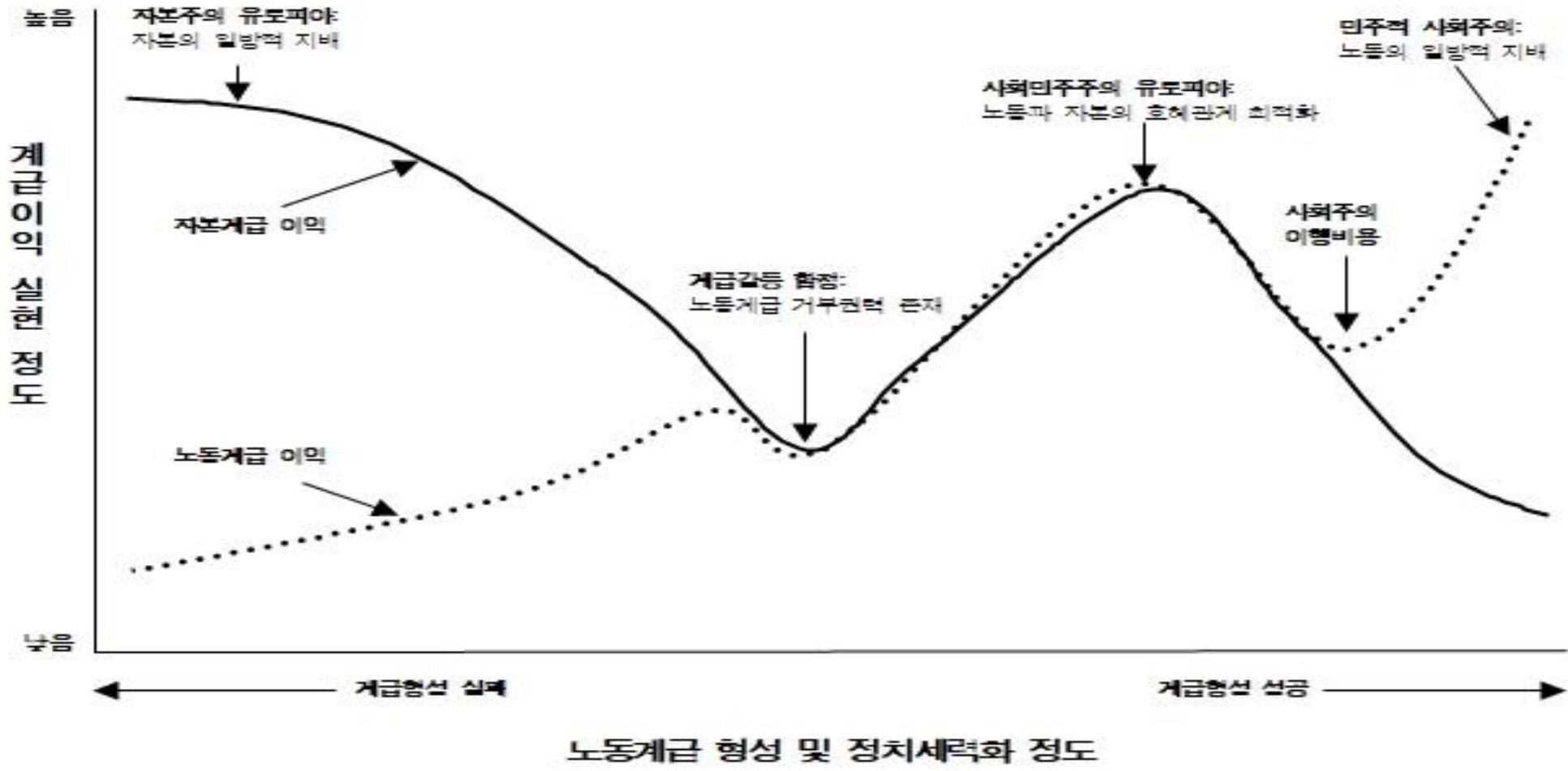
### ○ 민주노총 발전전략위원회(2001): "풍요로운 평등사회"

- \* 평등사회의 운영원리: 공공적 소유가 지배적인 사회,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사회,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;
- \*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: 국가권력의 민주적 통제, 공공적 소유를 지향하는 사회화정책, 시장적 조절의 제한과 국가적 조절의 확대·강화, 자본가적 통제를 제한하는 민주적 노동자 통제, 대외종속적 자본주의의 청산과 개방적 자립경제로의 전환;

## <표> 평등사회 지향 제도개혁: 자산·소득 불평등 해소 위한 정책 대안

자원 유형	특성	접근법 원칙	정책 대안
<소유 자산 & 자산 수익>			
생산적 자산 (자본)	경제 기여 높음/ 국가간 이동성 높음	소유구조 개입	사회적 소유 확대 / 공동소유 공동경영 (cogestión)
		소유권(이윤 처분권) 개입/규제	대·중소기업 이익균점 / 사적 자본 이윤의 공익적 활용 / 임노동자기금제 * 잔여청구권 인정
비생산적 자산(토지, 건물 등 부동산)	경제 기여 낮음/ 국가간 이동성 낮음	자산 수익(지대: 불로소득) 사회환원 원칙	누진세율 자산보유세 / 청년 기본자본 지급 * 주거권, 보육권 보장
<노동 소득: 분배>			
노동소득	노동의 대가	생산성 기여 보상	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, 연대임금정책 / 최저임금제, 생활임금제
<노동 소득: 재분배>			
노동계급 임금 소득	가치생산 보상	물적 생존권 보장	최저수준 소득세율
중간계급 임금 소득	가치생산 보상 & 지대	충성지대·기술지대 높은 세율	누진세율 소득세
경영진 보수	사용자성 자기 급여	자기 책정 급여(지대 성격) 사회환원	높은 최고세율의 누진적 소득세 / 최고임금 규제

<그림 4.2> [수정]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노동계급·자본계급의 계급이익



○ Wright(2020)의 계급이익 곡선: 노동계급 계급형성이 일정 수준 이상 진전되면, 노동계급의 거부권력(veto power)이 형성됨 ⇒ 자본계급의 일방적 지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: 계급갈등 함정(네거티브섬 게임)에 빠지게 됨: 한국의 현재 상황에 해당함;

## <표 4.2> 계급이익 곡선의 국면 비교

사회 체제	자본주의 사회			자본주의 이후
	좌측	중앙	우측	
커브 국면들	좌측	중앙	우측	우측극단
노동계급 형성 수준	낮음	진전/중간	강화/높음	지배
자본-노동 역학관계	자본 일방적 지배	계급갈등 함정:노동-자 본 대격돌/계급투쟁	사회민주주의: 공존상생	노동 지배
자본계급 이익	높음	중간	높음	하락
노동계급 이익	낮음	중간	높음	하락/상승
게임 성격	제로섬	네거티브섬	포지티브섬	네거티브섬/제로섬
시장경제모델	영미형 자유시 장경제모델	지중해형, 한국	스칸디나비아형, 대륙형	혁명적 상황

# 노동-자본 이해관계 게임룰 변화

○ 노동계급 계급형성 ↑ ⇒ 게임룰 변화:

- 자본계급 일방적 지배 국면: 제로섬 게임; 권위주의 시대 한국;
- 계급갈등 함정: 네거티브섬 게임(파업·직장폐쇄, 임금·이윤 ↓, 고소고발); 현재 한국 상황, 경제위기시 정리하고 결사항전; 스웨덴 20세기초(Ådalen shooting, 1931.5.14);
- 계급타협 국면: 윈윈의 포지티브섬 게임; 스웨덴 계급 상생(1938 살츠쇠바덴협약 이후); 2008-09 세계금융위기시 노사 자율위기협약;

○ 자본주의 축적체제 변화 ⇒ 포지티브섬 게임 여지 ↑;

- 자본주의 초기 외연적 축적체제: 생산요소 투입량 증가 의존;
- 자본주의 발달 내포적 축적체제: 기술혁신 & 생산성 향상 ⇒ 생산성 향상분만큼 노동-자본의 포지티브섬 게임 조건 ↑ : 포드주의 계급타협 시기 윈윈(노동 실질임금 ↑, 자본 이윤 ↑, 국가 세수 ↑);

## <표> 일반시민과 노조원의 양대노총 호감도 (0 비호감, 1 호감)

2023년 2월 조사	민주노총호감	한국노총호감
<전체 시민>	.1430	.1400
<노조원 상급단체>		
1) 민주노총 조합원	.4279	.2626
2) 한국노총 조합원	.2679	.4301
3) 상급단체 없음	.1480	.1620
4) 기타	.0000	.0000
전체	.2816	.2561
정규직	.2713	.2512
비정규직	.3318	.2796

- 시민들의 80%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: 노동조합 비호감도 86%는 이유 있는 비호감;
- 민주노총: 위기는 있으나 위기의식은 없다 "위기의 조직";

## <표> 노동조합의 활동 중점: 현재 & 향후

노동조합 활동 중점 (2023년 2월)	D6(현재)	D7(향후)	D7(향후)-D6(현재)
1) 조합원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	58.7	27.1	-31.6
2) 조합원의 고용안정	11.6	22.2	10.6
3)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	5.8	34.7	28.9
4) 사회보장, 세제개혁 등 사회제도의 개혁	2.9	15.9	13
5) 정치적 활동	21.0	.1	-20.9
합계	100.0	100.0	

\* "D6. 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보십니까?"

\* "D7. 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앞으로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"

# 노동조합 활동: [현재] 이익집단(특수이익 대변) ⇔ [시민들의 요구] 계급조직(보편 계급 이익 대변);



# <그림 19.1> 조세부담 수준과 소득 재분배 효과(2020년 기준)



# 복지증세 부담 의향과 상호성 원칙: 긍정적 & 부정적 상호성

<표 18.3> 복지증세 부담 의향 변화 2015-2019: 사회복지 확대 위해 세금을 더낼 의향 있는가?

복지증세 납부 의향				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(갤럽)			
조사 시점	증세납부 찬성	증세납부 반대	모름/무응답	긍정 평가	중립 평가	부정 평가	조사 시점
<b>&lt;박근혜 정부&gt;</b>							
2015.5.11	50%	50%	-	40%	10%	50%	2015.5.12-14
<b>&lt;대통령 궐위&gt;</b>							
2017.3.30-4.1	65.3%	31.5%	4.1%	대통령 궐위			
<b>&lt;문재인 정부&gt;</b>							
2017.8.11-12*	71.7%	26.2%	2.2%	78%	7%	15%	2017.8.16-17
2019.9.25-27**	41.7%	58.3%	-	41%	9%	50%	2019.9.24-26
<b>&lt;윤석열 정부&gt;</b>							
2023.2.3-20	36.3%	63.7%	-	35%	8%	58%	2023.2.14-16

\* 문재인 정부 초기 높은 증세 부담 의향: 쏠붙 기대감 반영; 신뢰·협력의 긍정적 상호성;

\*\* 증세 부담 거부: 사회·경제 개혁 후퇴에 실망; 불신·보복의 부정적 상호성(괘씸죄 응징)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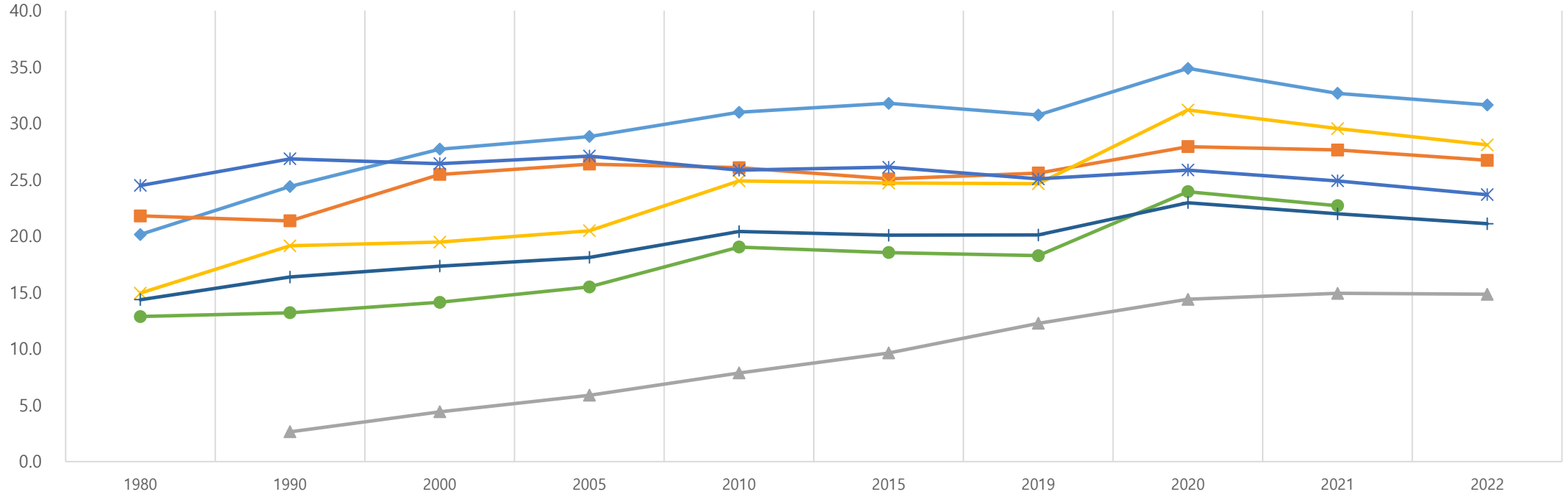
## <표 19.4> 북유럽 모델 선호 여부에 따른 증세부담 의향

		북유럽 모델 선호		전체
		선호 않음	선호함	
증세부담	반대	69.1%	56.7%	63.7%
	찬성	30.9%	43.3%	36.3%
전체		100.0%	100.0%	100.0%

# <그림>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, 1980-2022 (단위: %)

## GDP대비 사회지출 예산[OECD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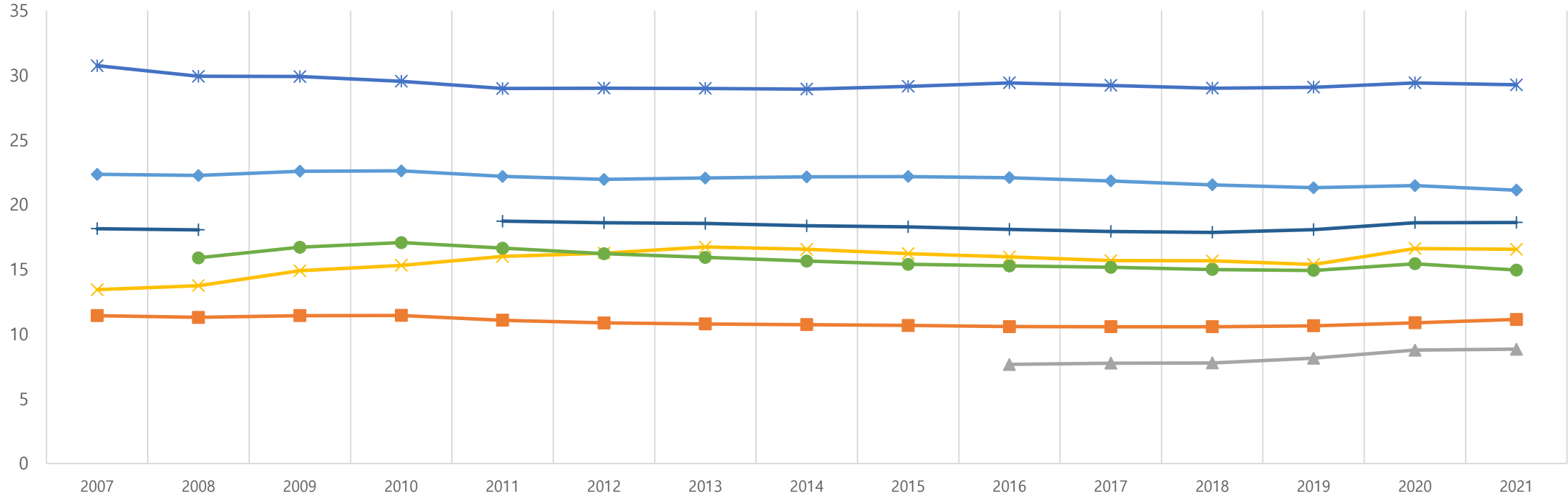
프랑스 독일 한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OECD평균



# <그림> 공공부문 고용비율, 2007-2021(%)

## 공공부문 고용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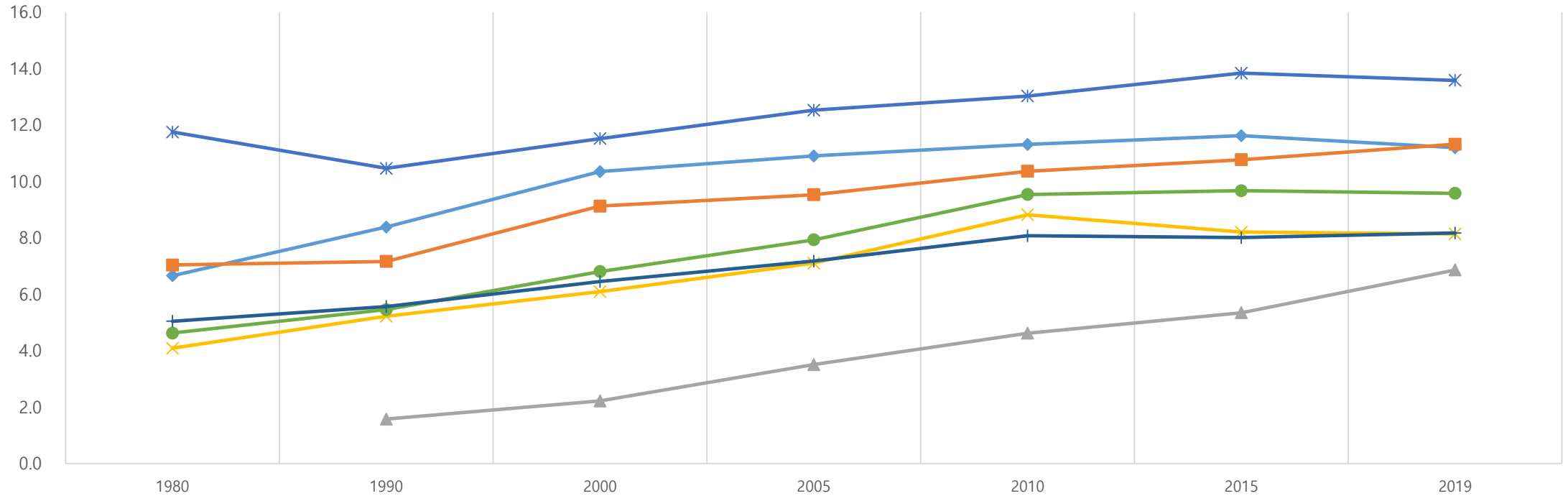
프랑스 독일 한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OECD평균



# <그림> GDP 대비 현물급여 사회지출 예산, 1980-2018(%)

## GDP대비 사회지출예산[현물급여]

프랑스 독일 한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OECD평균



제4부. 맥락적 벤치마킹:

Why not Sweden?

## 스웨덴의 국제적 비교 평가: 경제적 효율성 & 사회통합 동시 실현

○ EU가 European social model(유럽의 사회적 모델) 주창:

\* 유럽사회의 사회적 통합 유지하며, 미국의 경제성장·효율성 따라잡는 전략 ⇒ 유럽의 사회적 모델;

\*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 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: 경제적 효율성 위해 사회적 통합 희생함;

○ Economist(2012)의 스웨덴 벤치마킹 독려: 2008-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모델 비교;

\* 스웨덴: 경제적 효율성 & 사회적 통합(불평등 완화) 동시 실현함 ⇔ 미국: 심각한 불평등 폐해;

- 북유럽 국가들 "경제적 경쟁력, 사회적 건강, 행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최고"



# 맥락적 벤치마킹: Why not Sweden?

○ 평등사회 대안: 스웨덴 모델의 상대적 우위, 파라다이스는 아님;

## 1> 평등사회 대안: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비교 우위

- 1) 불평등 완화 성과: 자본주의 안·팍의 상대적 우위
- 2) 노동-자본 상생의 관계: 포지티브섬 게임
- 3)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

## 2> 변혁·이행의 정치: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모범적 실천

- 4) 스웨덴 모델의 효율적 작동: 경험적 입증
- 5) 스웨덴 모델의 현재는 계급역학관계의 함수
- 6) 스웨덴은 평등사회 이행 경로

## 1> 평등사회 대안: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비교 우위

### 1) 불평등 완화 성과: 자본주의 안·팍의 상대적 우위

\*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 &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평등함;

\* 소득배율(상위 10%/하위 50%) [2019년 기준] :

스웨덴 1.2배(29.6%/24.3%) << 독일 2.0배(37.2%/18.9%) << 중국 2.9배(41.7%/14.4%);

### 2) 노동-자본 상생의 관계: 포지티브섬 게임

\* 자본의 일방적 계급지배 포기, 노동과 공존·상생 선택 ⇒ 포지티브섬 게임;

\* 경제민주주의: 공동결정제 &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 ⇒ 자본의 적응·활용 ⇒ 상호신뢰 ↑;

\* 노동-자본 관계: 신뢰·협력의 긍정적 상호성 ⇒ 경제위기 대응 방식:

- 노사 협력으로 위기 극복 매진 ⇒ 경제위기의 효율적 극복:

- [예] 2008-09 세계 금융위기·경제위기 극복 위한 위기 협약(노사 자율);

## 1> 평등사회 대안: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비교 우위

### 3)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

- \* 여성, 노인, 소수자, 장애인, 이주민,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통합: [공리주의]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칙 & [롤스] 최소수혜자 보호 원칙 실천 ⇒ 평등 & 공정 실현;
- \* 성평등 실천: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율 격차와 성별 임금격차, 가정내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 양육 분담, 국회의원 여성 비율, 대기업 고위 경영진 여성 비율 등 거의 모든 성평등 지표에서 모범을 보임;
- \* 유급 육아 휴가 15개월: 각 부모 할당제 3개월 ⇒ 남성의 육아휴가 사용율 ↑ ⇒ 남성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 ↑;

<표> OECD 성평등·성차별 지수: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?

	스웨덴	독일	스페인	미국	한국
<노동시장 성차별>					
고용률(% , 2022년): 전체	77.1	76.9	65.5	71.3	68.5
남성	79.4	80.6	70.5	76.1	76.9
여성	74.7	73.1	60.5	66.5	60.0
남성-여성	4.7	7.5	10	9.6	16.9
성별임금격차(중양값기준)					
%(2022년)	7.7	14.4	6.7	17.0	31.2
<가사노동 성분업>(최근년도)					
남녀부불노동 시간: 합계(분)	391.2	392.7	435.0	437.1	264.0
여성부불노동시간 비율(%)	56.3	61.7	66.5	62.1	81.4
남성부불노동시간 비율(%)	43.7	38.3	33.5	37.9	18.6
남녀 격차(%)	12.6	23.4	33	24.2	62.8

## 2> 변혁.이행의 정치: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모범적 실천

### 4) 스웨덴 모델의 효율적 작동: 경험적 입증

\* 스웨덴 모델: 경제적 효율성 & 사회적 통합 동시 구현했음;

\* 스웨덴 모델의 수월성: 1932년 사민당 집권 이래 1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음;

- 1세기에 달하는 시행착오의 과정 거쳤음 ⇒ 스웨덴 벤치마킹의 의미: 100년의 시행착오 피할 수 있음;

\* EU & Economist가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강력 추천함:

- 단순한 이론적·가설적 모델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;

# 한국의 현실: 사회통합 실패: 소득불평등은 선진자본주의 최고 수준, 시민 불만 높음;

## 2> 변혁.이행의 정치: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모범적 실천

### 5) 스웨덴 모델의 현재는 계급역학관계의 함수

\* **스웨덴은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**: 렌·마이드너 모델, 보편주의 복지국가, 경제민주주의; [비교: 독일]

\* 노동계급 계급형성 & 정치세력화(사민당)의 성공 ⇒ 스웨덴모델의 형성 & 방어;

\* **스웨덴 모델의 지속가능성 & 불가역성**[퇴행 저지 역량]: **정치세력화/국민여론 &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함수**; [비교: 브라질, 베네수엘라]

\* 스웨덴 보다 더 평등하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려면, 노동계급 계급형성 & 정치세력화에서 스웨덴 능가하는 성공 전제되어야 함;

# 한국의 현실: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(노조 조직률 10% 수준, 조직 노동 분열, 정규직-비정규직 등 계급 분절[대공장 노동조합의 두 계급 전략]) ⇒ 계급갈등 함정 벗어나지 못함:

- 자본의 일방적 지배 방식 고수 & 과거 회귀 시도, 미국형으로 후퇴할 가능성 항존함;

## 2> 변혁.이행의 정치: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모범적 실천

### 6) 스웨덴은 평등사회 이행 경로

- \* 스웨덴 모델: 노동계급 계급형성 & 정치세력화 성공 ⇒ 경제적 효율성 & 사회통합 동시 구현, 평등 & 공정 실현: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& 삶의 질 보장;
  - \* 스웨덴 & 스칸디나비아 모델 국가들: 현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현된 평등-공정의 최고치임;
    - 완벽하지 못한 한계의 원인: 자본주의 체제의 제약 & 계급형성-정치세력화(국민여론 지지율)의 미흡함 때문일 것;
  - \* 스웨덴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에 기초한 이행 정치의 성과: 자본주의 체제 넘어서는 사회경제체제를 추구하더라도 스웨덴은 우회가 아니라 경유할 이행경로임;
    - 스웨덴은 이행경로상 자본주의 체제 경계의 마지막 체크포인트;
- # 한국의 현실: 진보정당 지지율 2%, 민주노총 비호감도 86%;

## <표>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& 한국의 현실

	시장경제 모델	계급 역학관계	이데올로기 각축
1> 평등사회 대안	1) 불평등 완화 성과: 자본 주의 안·팍의 상대적 우위	2) 노동-자본 상생의 관계: 포 지티브섬 게임	3) 사회적 합의: 사회적 약자들 의 기본권 & 삶의 질 보장
2> 이행전략	4) 스웨덴 모델의 효율적 작동: 경험적 입증	5) 스웨덴 모델의 현재는 계급 역학관계의 함수	6) 스웨덴은 평등사회 이행 경 로
스웨덴 경험	경제적 효율성 & 사회통 합 동시 실현	노동계급 계급형성 성공 ⇒ 스 웨덴 모델의 불가역성	사회세력 연대 & 국민적 지지 ⇒ 스웨덴 모델의 지속가능성
한국 현실	사회통합 실패: 불평등 수 준 심각, 경제적 효율성 제약	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 ⇒ 계 급갈등 함정: 자본의 일방적 지배, 미국형으로 후퇴 가능성	상승이동 기회 보장 명제의 각 축: 진보정당 지지율 2%, 민주 노총 비호감도 86%



# 감사합니다

한국비정규노동센터  
<http://www.workingvoice.net/xen/>



“두루미가 있어 하늘은 더 아름다워지고, 하늘이 있어 두루미도 더 아름다워진다”  
<계급론자, 연구자·활동가로 살아가기> (경제와사회, 2019)